



WORLD  
WARCRAFT  
MIDNIGHT

아마니의 유산

GRAHAM ROSWELL

스토리  
GRAHAM ROSWELL

일러스트  
MATT HUBEL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스토리 자문  
ABIGAIL MANUEL

창작 자문  
RAPHAEL AHAD,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IA NALYVAIKO,  
JT TORREA, TAKAYUKI SHIMBO

감사한 분들  
VALERIE STONE, NATALIA HINDS

현지화 한정) 번역  
TK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이 소설은 판권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판권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숯** 과 쇠, 흙냄새가 뒤섞인 신랄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불빛이 엄숙한 얼굴들을 그림자와 불꽃의 얼룩으로 물들였다. 제단에 쌓인 장작더미는 칸두루의 낮게 흐르는 노랫소리에 맞춰 타닥거리고 있었다.

전령은 거대한 독수리의 형상으로 빛어진 오래된 석상 앞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의 고귀한 얼굴은 숨겨진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아킬존. 폭풍과 하늘의 어머니. 한때는 아만니가 주로 섬기는 로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킬존은 그들을 버렸다.

그런데도 칸두루는 계속 춤을 췄다. 그는 다져진 흙바닥을 힘껏 구르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박자를 맞췄다. 칸두루의 팔이 머리 위에서 비틀렸다가, 마치 날아오를 듯 크게 벌어졌다.

근처에 무릎 꿇고 앉은 줄자라는 외숙부가 숭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칸두루가 아킬존을 찬미하며, 결코 내려오지 않을 축복을 애원하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 낭비야.' 줄자라의 일부가 소리 없이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길게 늘인 음을 끝으로, 칸두루는 제단에서 나무 그릇을 집어 들어 바치듯 들어 올렸다. 그는 거대한 독수리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줄자라를 향해 돌아섰다.

줄자라는 등이 곧게 펴지는 걸 느꼈지만, 가만히 있으려 애썼다. 무릎은 흙바닥에 붙인 채, 손은 옆으로 늘어뜨리고, 몸은 앞으로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아킬존이시여!” 킨두루가 외쳤다. “이 선택받은 딸에게 그대의 표식을 새기겠나이다.” 킨두루가 그릇에 손가락을 담갔다. 손가락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는 물감을 줄자라의 팔과 어깨, 목에 쓸어 발랐다.

“네 어미를 꼭 닮았구나.” 킨두루가 칠을 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빛에는 조부의 매서움이 깃들어 있어. 날카롭고, 위험하지.”

분노가 맹독처럼 줄자라의 뱃속에서 타올랐다. “전 조부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횃불이 자아낸 연무의 한복판에 무릎 끓고 앉은 줄자라를 응시하던 킨두루의 미소가 흐릿해졌다. 연기와 역한 의식용 기름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전령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위대한 독수리시여. 이 아이의 정신과 육신, 영혼을 그대의 날개 아래에 두소서. 힘과 지혜를 내려 주소서. 이 아이를 굽어살피고 인도하소서. 자신의 백성을 같은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킨두루가 물감 묻지 않은 손을 킨두루의 머리에 얹었다. “줄자라, 줄진의 혈통. 머잖아 아마니의 족장이 될 자.” 말은 단호했지만, 입꼬리에 어린 희미한 굴곡이 킨두루의 대견함을 드러냈다.

“왜 누님이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줄잔은 두 남매의 어머니와 함께 의식 진 바깥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왜 어머니가 물러나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일부러 이해하지 않겠다는 소리잖느냐.” 자라마 족장이 이를 악문 채로 쏘아붙였다.

줄자라의 짜증은 어머니의 날 선 대답과 그대로 맞물렸다. 왜 동생은 항상 명든 곳을 누르듯 불쾌한 화제를 들추는 걸까?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에. 이 의식은 가족에게 기쁨의 순간이어야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승천하는 순간을 보러 온 것 아닌가. 그런데 외려 활시위처럼 팽팽해진 긴장감이 이 상황을 휘감고 있었다.

자라마는 말을 이었다. “누나가 걱정되겠지. 하지만 네 누나는 강하다. 나보다도 더.”

줄자는 시선이 어머니의 상처로 끌려가지 않게끔 붙잡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자라마가 말하며 꽉 움켜쥔 망토 아래에는 화상 자국이 숨겨져 있었다.

“다른 부족들이 감히 반발하지 못할 만큼 강하지.”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까?” 줄잔이 받아쳤다. “한밤중에 혼자서 혹부리나무족을

물리친 그 강대한 자라마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승리의 흉터를 달고 생활하셨고요. 예?"

몇 주 전, 어머니의 상단은 정착지 인근 숲을 배회하던 거인들에게 습격당했다. 어머니는 불타는 통나무에 갈비뼈가 으스러졌고, 다리는 산산이 조각났다. 지독한 화상 앞에서는 제아무리 강력한 트롤이라도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 외에도 무수한 활약을 하셨죠." 줄잔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 줄자라는 지금 이 순간으로 끌려왔다. "그걸로 아직 부족합니까?"

어머니를 능가할 자가 드문 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줄자라는 이제 자라마의 딸이라는 이름만으로 서 있지 않았다. 전투 기술은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훈련뿐만 아니라, 야생을 정찰하거나 국경에서 벌어진 국지전에서 이미 증명한 뒤였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땅은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

자라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이름을 네가 지킬 필요는 없다. 아주 멋진하니까. 하지만 이 상처들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라마는 망토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내가 족장으로 남아, 도전을 받고, 패배한다면....." 말을 잇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게 가족에게, 나아가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줄잔은 송곳니가 튀어나온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만해라, 잔." 줄자라는 동생의 항변을 더 들을 인내심이 없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줄잔은 고개를 숙여 수긍을 표했다.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줄자라는 맘이였고, 이것이 그녀의 길이었다.

늘 그렇듯 언쟁을 주고받는 내내 조용히 있던 킨두루가 헛기침을 했다. "다 끝났나?"

자라마는 이를 훑으며 계속하라는 손짓을 했다.

줄자라는 외숙부를 마주했다.

"그럼 재개하지." 그는 다시 줄자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줄자라, 줄진의 혈통. 머잖아 아마니의 족장이 될 자. 일어나라. 그리고 자격을 보여라."

줄자라는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저항했고, 다리는 감각이 둔했다. 외숙부가 나 때는 몇 시간씩 무릎을 끓어도 괴딱없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상상됐다. '요즘 젊은것들은 기도를 안 해.'

그야 우리 목소리를 들을 존재가 남아 있지 않으니까.

의식을 마친 킨두루는 물러서며 깊이 허리를 굽혔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그만해라, 잔.” 줄자라는 동생의  
항변을 더 들을 인내심이 없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이어지리라.”

자라마가 딸에게 다가왔다. 망토가 흘러내리며 물감을 칠한 손바닥과, 화상 자국 가장자리의 뒤틀린 살결이 잠깐 드러났다. 그 모습이 줄자라의 가슴을 세게 할퀴었다.

자라마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딸의 얼굴과 운명에 표식을 남겼다.

줄자라는 어머니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온화함을 보았다. 애타함이었다. 그리고 곧 사라졌다.

“다른 부족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자라마는 도끼를 집어 들었다. 도끼날 가장자리에는 손가락만 한 가시들이 박혀 있었고, 중심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무게에 자라마는 잠시 비틀거렸다. 줄자라와 킨두루가 동시에 손을 뻗었다. 줄잔도 한발 다가섰다. 하지만 자라마는 그들을 물리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아마니의 미래를 맞이하자.”



아킬존의 제단에서 회합이 열리는 전당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가장 높은 두 언덕 사이에 다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위로 길이 이어졌다. 아마니자르는 그 주변으로 펼쳐져 있었다. 이 마을은 하이 엘프의 검과 마법에 밀려난 이들이 모이는 중간 지점이 되었다. 이주해 온 자들과 그 동맹은 아마니의 땅을 약탈하고 영토를 빼앗았으며, 살아남은 자들마저 터전에서 몰아냈다. 아킬존의 외연에 있는 이곳은 안전했다. 피난처였다. 한때 로아의 보호를 받던 군주의 땅이었다. 생존자들은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숨을 고르곤 했고, 일부는 그대로 남았다.

그렇게 아마니는 한때 제국을 이루던 광대한 도시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았다. 줄자라는 그 도시들을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장로들의 이야기로 빛어진 그 장관은 꿈을 채웠다.

어릴 적, 외숙부와 어머니는 과거를 이야기해 주곤 했다. 로아들이 사원에 머물렀고, 수많은 전령이 새로운 족장의 즉위부터 신생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축복을 내렸던 시절을.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길을 떠나기 전에도, 누굴 만나러 가기 전에도, 농작물의 씨를 뿌리기 전에도, 수확하기 전에도, 놀이와 시합에 내기를 걸기 전에도 기도를 올렸다. 신에 대한 경외는 아마니의 삶 전반에 녹아들어 있었다.

‘우린 진정 축복받은 민족이다.’ 킨두루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 눈에는



동경과 그리움이 어렸다.

지금은? 혹자는 아마니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하겠지.

일행이 이동하는 동안, 줄자라는 주민들 사이에 섞인 낯선 얼굴들을 보았다. ‘섞여 있다’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방문자들은 대체로 끼리끼리 뭉쳐 있었고, 그중 몇은 무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른나무껍질의 질은 갈색 갑옷과 옅은 물감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림자소나무의 강렬한 노란색과 불타는 주황색, 썩은가지의 선명한 초록과 파란색도 마찬가지였다. 가면을 이루는 뼈가 특히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초록색 사이에 섞인 흰 얼굴들이었다.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수가 꽤 많은데요?”

“그러게 말이다.” 킨두루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콜란지가 장로 대신 전사를 보낸 모양이군.”

줄자라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다른 부족지도자들과의 회합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 그중에서도 오만한 콜란지를 그녀는 가장 못마땅해했다.

“깨진엄니는 안 보여요.” 줄자라가 말했다.

“그렇구나.”

“도중에 습격당한 걸까요?”

“가능성은 있지.” 킨두루가 동의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다.

줄자라도 마찬가지였다. 한 부족의 수행단이 통째로 사라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회합장 입구 양옆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다. 자라마가 다가오자 그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올렸다. 줄자라는 회합 현장을 보기 전에 먼저 소리와 냄새를 느꼈다. 기름 먹인 가죽 냄새, 주술사들이 갖고 다니는 뿌리와 약초의 짙은 향,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톡 쏘는 땀 냄새가 깔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각 부족은 넓은 방 안에서 늘 자리하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썩은가지는 수가 워낙 많아, 본래 깨진엄니에 배정된 빈자리까지 차지할 정도였다. 자라마는 각 부족의 대표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줄자라는 그 틈을 타 방 동쪽 벽을 훑어보았다.

과연,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키는 크지만 마른 체구의 인물이 기둥에 몸을 기대고 서서,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녹색 눈으로 문객들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줄자라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없이 고개를 기울여 불렀다. 그 인물은 군중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가, 잠시 후 줄자라의 어깨 옆에 다시 나타났다.

“줄자라.”

“랄지.” 줄자라는 그를 바로 보지 않은 채, 인사를 마치고 있는 어머니에게 시선을 둔 채 말했다. “깨진엄니 쪽 소식은 없어?”

“없어.” 랄지가 답했다. 줄자라보다 한 살 많은 랄지는 동족 중에서도 손꼽히는 정찰병이었다. 뭔가 이상한 짐새가 있다면, 랄지는 반드시 찾아냈다. “만약을 대비해서 소규모 수색대를 준비해 뒀어.”

“뭐든 알아내면 바로 보고해.”

랄지는 고개를 숙인 뒤 물러나 회합장을 빠져나갔다.

“무슨 얘기였어?” 줄자라의 등 뒤에서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남동생이 대화를 엿들은 모양인데, 다행히 끼어들지는 않았다.

“그냥 촉이 좀 와서.” 줄자라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뜻이 전해지길 바라며 그를 훌겨봤다. 여긴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너무 많았다.

줄잔은 이마를 찌푸렸다. 질문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꼭 다문 입술 뒤로 삼켰다.

“조심해, 자꾸 얼굴 구기면 인상 나빠져.” 줄자라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더 예쁠걸.”

줄자라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역시 잔이다.

곧 일행은 다시 움직였다. 일행이 지나가자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자라마에게 경례를 보냈다. 썩은가지 중 일부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눈에 들어왔다.

자라마는 회합장 가장 앞 탁자에 도착해 그 뒤에 앉았다. 줄자라는 어머니의 오른편에, 줄잔은 왼편에 섰다. 칸두루는 과장되게 허리를 굽힌 뒤 완전히 옆으로 물러났다.

줄자라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방 앞줄에 선 대표들을 바라봤다. 뭐, 셋 중 둘만 있었지만. 콜란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줄자라와 마주치자, 비웃음은 더 짙어졌다. 혐오감이 그녀 안에서 물결쳤다.

“논의할 게 많다.” 자라마가 말을 꺼냈다.

고개들이 끄덕여졌고, 동의하는 소리가 빗방울처럼 흘어졌다.

“정찰병들이 남쪽에서 새로 구축된 보급로를 확인했다. 금빛 성벽 뒤에서, 엘프들이 원가를 만들고 있다. 무엇이 모든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자라마의 시선이 비어 있는 깨진엄니 구역으로 옮겨갔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더 이상 그대들의 족장이 아니다. 내 딸 줄자라가, 내 자리를 대신해 이끌 것이야.”

자기 이름이 불리자, 줄자라는 앞으로 나섰다.

자라마는 말을 이었다. “내 손으로 길리냈고, 우리 동족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위험을 겪더니.” 적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알지. 놈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다. 우리 혈통의 전설이, 이 아이의 피에서 노래하고 있다.”

환호성이 장내를 뒤덮었고, 줄자라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어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이 그녀에게 새겨 넣은 모든 것은,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줄자라는 어머니이자 족장이 늘 그랬던 것처럼 턱을 들어 올렸다.

“내 생각엔 말이지.” 그때 불쾌하게도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위를 넘기기 전에, 우리도 한마디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콜란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흉터로 빽빽하게 뒤덮인 근육질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줄자라는 이를 악물었다.

“콜란지.” 자라마가 노련한 침착함으로 받아쳤다. “할 말이 있나?”

썩은가지의 우두머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미소를 지었다. “있지.”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둔기를 움켜쥐었다. 수많은 적을 짓이긴 머리 부분은 닳아 있었고, 끝부분은 붉게 물든 흥포한 창날처럼 날카로웠다. 콜란지는 한 손으로 무기를 들어 올려 줄자라를 겨눴다. “이 꼬마가 엘프들을 안다고? 국경에서 생기는 국지전 말고,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긴 한가? 놈들의 머릿수, 쏟아지는 화살, 손끝에서 터지는 불길을 마주하고도 싸우기로 선택한 적이 있나?”

줄자라는 다시 한번, 족장이 되기로 결심한 뒤 처음 느꼈던 공허함을 느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걸핍이었다.

“아니라고? 놀랍지도 않군.” 콜란지는 목표를 바꿔, 꼼짝도 하지 않는 자라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가문의 실패 때문에, 우린 적에게 빼앗기지 않은 한 줌마저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젠 검증도 안 된 애송이를 앞세우겠다고?” 그는 혀를 차며 소리를 냈고, 그 모욕은 방 안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말도 안 되지.”

백열 같은 분노가 줄자라를 집어삼켰다. “굳이 이 시기를 골라서 이러나?! 엘프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부 싸움을 벌이겠다고?”

“내 생각엔 말이지.” 그때  
불쾌하게도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위를 넘기기  
전에, 우리도 한마디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콜란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흉터로  
빡빡하게 뒤덮인 근육질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콜란지의 얼굴에는 광기에 가까운 즐거움이 번졌다. “엘프는 네 걱정거리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축에 듈다, 꼬마.” 콜란지는 혀로 송곳니를 훑으며, 한쪽 송곳니에 감긴 가죽 끈을 희롱하듯 건드렸다. “도전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방 안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한쪽에서는 배신을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자라마가 침묵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지만, 부족들은 삶섞거리며 침을 튀겼다. 무기를 든 손이 솟아올랐다. 모욕과 비난이 창처럼 오갔다.

“다 명청이들이야.” 줄잔은 무심한 척했지만, 크게 뜯은 눈은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참다못한 줄자라는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도끼를 낚아챘다. 그러고는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포효하며 내리꽂았다. 날이 바닥을 찍는 소리는 천둥 같았고, 돌바닥에는 거미줄처럼 균열이 퍼졌다. 줄자라는 갈라진 바닥에서 도끼를 뽑아 들며 으르렁거렸다.

“족장으로서 정숙을 명한다.” 줄자라는 여전히 실실 웃는 콜란지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자, 좌중은 조용해졌다. 자라마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줄자라의 내면에서 끊임 분노가 어머니의 눈에도 반짝이고 있었다.

“좋다.” 자라마의 목소리는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회합이 유혈 사태 없이 끝난 건 기적에 가까웠다. 콜란지는 병력을 이끌고 정착지 경계 밖으로 물러났다. 다른 부족들은 각자 배정된 숙소로 돌아갔다. 회합장에는 줄자라와 가족만이 남았다. 큰 싸움은 피했지만, 싸울 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분노가 줄자라의 관자놀이를 두드렸다. “어차피 트롤 한 놈입니다!”

“자라.” 어머니가 이마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자라마는 손으로 허공을 갈랐다. “콜란지는 간교하고 배신을 일삼는 독사지만, 이빨은 날카롭지.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다.” 자라마의 시선이 다시 탁자 위에 놓인 도끼로 향했다. “놈이 싸움을 원한다면, 내가 상대하겠다.”

믿기 힘든 감정이 줄자라의 목을 틀어쥐었다.

그 감정을 떨쳐내기도 전에, 킨두루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지겠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네가 치료소로 굴러들어 온 날, 나도 거기 있었어. 온몸이 만신창이였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로아께 감사할 일이야. 회합을 열고 의식에 설 수 있을 만큼 간신히 회복했을 뿐인데, 목숨을 건 결투를 치르는 건 말이 안 돼. 게다가 네가 자리를 대신해 나서면, 오히려 자라의 입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된다.” 전령은 자라마에게서 조카에게로 시선을 옮긴 뒤, 다시 자라마를 응시했다. “도전받은 사람은 줄자라다. 정당한 권리는 저 아이에게 있어.”

“그다음 도전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줄잔이 물었다. “그다음은? 그리고 또 그다음은?”

줄자는 동생을 노려봤다. “왜 그런……”

“콜란지는 싸움을 건 게 아니야. 누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지. 놈을 꺾는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지진 않아.”

불행히도, 남동생의 말이 옳았다. 회합에서의 반응을 보건대, 콜란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줄자는 족장을 지내는 내내 도전자들과 싸워야 할지도 몰랐다.

“내가 젊었을 적엔……” 킨두루가 입을 열었다.

“또 시작이군.” 줄잔이 중얼거렸다.

“내가 젊었을 적엔……” 킨두루가 조카를 노려보았다. “로아의 은총만으로도 도전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

“로아는 떠났어.” 인내심을 잃은 자라마는 혀를 차며 쏘이불였다. “은총도 사라졌지.”

이럴 때면 로아의 부재가 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맞추지 못한 빼가 그대로 아물어 버린 것처럼, 종족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이 상처를 안고 갈 터였다.

“로아는 자취를 감춘 거지, 은총은 남아 있다.” 킨두루가 줄자를 향해 돌아섰다. “아킬존의 사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라마가 고함쳤다. “지금 산은 너무 위험해!”

킨두루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원에 어떤 도끼가 있다. 오래전에 아킬존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물건이지. 로아가 내린 선물에는 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위험한 여정이 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도끼를 되찾아온다면, 침묵 속에서도 로아가 여전히 우리를 굽어살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너를 말이다. 그 도끼로 콜란지를 쓰러뜨려라. 진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보이는 거다.”

침묵이 전당을 채웠다. 자라마가 준비한 반박은 이것이 딸의 통치권을 지킬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 순간 혀 위에서 말라버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 줄자라의 어깨도 함께 내려앉았다.

“정말 하고 싶느냐?” 자라마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팽팽했다.

줄자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습니다. 해야..... 합니다. 로아의 은총이 제게 있든 없든, 백성을 이끌 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가 될 겁니다. 동시에 제 이름도 지킬 수 있고요. 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콜란지의 주장을 꺾을 수 있겠죠.”

자라마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일어나 탁자를 돌아왔다. 줄자라는 어머니가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열린 품으로 들어갔다.

“도전을 받으면 이틀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되어 있지.” 자라마가 머리칼에 속삭였다. “그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사흘이 되는 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올 겁니다, 어머니.”

포옹이 더욱 단단해졌다. 거의 아플 정도였다. “반드시 돌아와. 알겠어? 반드시.”



결정이 내려지자, 줄자라는 곧장 준비에 들어갔다. 산은 멀지 않았지만, 사원이 자리한 봉우리는 높았다. 심지어 한때 사람들을 제단까지 옮겨주던 마법의 바람은 로아가 사라진 날 멎어버렸다. 하늘 어머니의 축복 없이 오르는 등정은 사실상 사형선고였다. 줄자라는 그 길을 택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로 향했다. 여러 물자가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지도와 서신으로 가득했겠지. 오늘 밤은 여정에 쓸 물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줄자라의 집중이 잠시 흐트러졌다. “들어와.”

뜻밖에도 나타난 건 남동생이었다. 그는 물자를 늘어놓은 탁자를 훑어봤다. “이틀 여정치고는 가볍군.”

“내가 할 일에는 충분해.”

줄잔은 닫힌 문에 기대어 섰다. 줄자라가 짐을 꾸리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거워질 즈음, 줄잔이 입을 열었다. “콜란지를 꺾을 다른 방법이 있어.

“하고 싶습니다. 해야.....  
합니다. 로아의 은총이 제게 있든  
없든, 백성을 이끌 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가 될 겁니다.  
동시에 제 이름도 지킬 수 있고요.  
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콜란지의  
주장을 꺾을 수 있겠죠.”

로아가 사라진 지금, 의미도 없는 의식용 무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

말의 내용보다, 마치 비밀을 나누듯 낮춘 그 목소리가 줄자라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신중하게 출잔을 바라봤다. “어떤 방법?”

“독.”

“구미가 당기네.” 줄자라는 인정한다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안 돼.”

“죽일 만큼 강한 건 아니야. 그냥..... 느리게 만드는 거지. 잠시 힘을 빼놓는 거야.  
어머니에게 시간을.....”

“너도 날 의심하는 거구나?” 줄자라는 몸을 돌려 동생을 마주했다. 입술은  
다물리고, 눈썹은 도전적으로 치켜 올라 있었다.

출잔은 늘 그렇듯 조용한 확신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평생을 함께한 덕에,  
그는 누나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난 그 누구보다 누님을 믿어. 하지만 콜란지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려면, 이틀은 쉬어야 해! 훈련도 해야지! 무슨 동화를 쫓는  
것보단 뭐든.....”

“그만해, 잔. 그만!” 줄자라는 손으로 허공을 갈랐다. “나는 할 거야. 해야 해.”

“왜?” 그 한마디에는 요구와 간청이 함께 담겨 있었다. 줄자라는 동생의 눈에서  
상처와 두려움을 보았다.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동생을 끌어안고, 모두 괜찮을 거라 말해주고 싶었다. “그냥 그래. 네가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 않아.”

다른 종류의 고통이 출잔의 얼굴을 스쳤다. “차라리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네.”

돌덩이가 위장에 가라앉은 듯한 기분으로, 줄자라는 다시 채비에 집중했다. “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침묵이 다시 돌아왔다. 줄자라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등 뒤를 파고드는  
남동생의 시선을. 못 참고 그만 가든, 준비를 돋든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 출잔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누나의 여러 모습을 봤어. 침착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 강인한 모습. 선한  
모습. 하지만 어리석은 모습은 못 봤지. 지금까지는. 고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지 마.”

문이 쟁 닫혔다.

혼자가 된 줄자라는 고요 속에 서 있었다. 동생의 말이 걱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런 비열한 수를 제안받은 건 쉽게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썩은가지가 도덕으로 이름난 부족은 아니었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지금 네 헛소리를 더 받아줄 기분이 아니야, 잔.”

“녀석이 이번엔 무슨 짓을 했는데?”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선 줄자라는 문간에 선 랄지의 짓궂은 표정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생 녀석 화법 알잖아. 가끔 불쾌할 때가 있어.” 그녀는 랄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뭔가 알아냈어?”

정찰병은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깨진엄니는 습격당한 게 아니야. 오지 않았어.”

“뭐라고?!”

“오지 않았다고.” 랄지는 사과하듯 빈손을 펼쳤다. “항의하기 위한…… 항의인 셈이지.”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었다. 줄자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족장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럴지도.” 랄지는 좁은 공간을 가로질러 침대에 편하게 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옆자리를 두드려 줄자라를 불렀다. “정보통 말로는, 엘프들이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도 영향을 준 것 같아.”

“놈들만 그런 것도 아니지.” 줄자라는 옆에 털썩 앉았다. 랄지가 작게 웃었다.

“아니지. 근데 이번 항의는, 너 개인보다는 예전에 연합이 실패했던 기억에 대한 반응에 가까워. 조금은 위로가 될까 싶어서.”

“전혀.”

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줄자라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따뜻한 손길은 위안이 되었지만, 줄자라의 이율배반적인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우리 가문 때문이야. 조부가 내 목에 또 하나의 돌을 얹어 놓은 셈이지.” 줄자라는 몸을 숙여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억눌린 신음을 삼켰다.

“네 심정을 다 안다고는 말하지 않을게.”

손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줄자라를 끌어 일으켰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줄자라를 일으킨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주었고, 엄지가 뺨을 스쳤다. “의지할 사람들이 있잖아. 널 아끼는 사람들.”

줄자라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랄지의 이마가

자신의 이마에 닿았다. “알아.”

“그런데도 저주받은 산을 혼자 오르려고.” 랄도 틀림없이 줄자라의 결정에 대해 할 말이 많으리라.

“혼자 산을 오른 적은 많아.”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그렇겠지.”

“망설임 없이.”

“그렇겠지.”

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체념과 더불어, 소중한 이를 도울 수 없음에 대한 소리 없는 좌절이 담긴 무거운 한숨이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이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알겠지.”

“음.”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함께할 거란 것도.” 랄지는 줄자라를 끌어안고,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단단히 품었다. “언제나.”



마을이 침묵에 잠겼을 무렵, 줄자라는 집을 빠져나와 텅 빈 길을 따라 내려갔다. 밤의 어둠에 숨어, 그녀는 아마니 보초병도, 입구에 진을 친 썩은가지 병력도 알아채지 못하게 숲에 숨어들 수 있었다.

줄자라는 일정하지만 빠른 걸음을 유지하며, 계획을 수없이 되짚었다. 가장 가파른 구간을 오르기엔 너무 어두웠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볼 생각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다시 출발하면, 오후 중반에는 정상에 닿을 수 있을 터였다. 그다음엔 도끼를 찾고, 다시 내려와, 콜란지와의 승부에 맞춰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허점이 많고 변수도 수두룩한 계획이었지만, 줄자라에게는 이게 전부였다.

길을 따라가던 중, 그녀는 아킬존에게 봉헌된 작은 사당들을 마주쳤다. 과거엔 이 기념비마다 신도들이 남긴 촛불과 공물이 가득했다. 신도가 손수 만든 봉헌물이나, 음식으로 채운 바구니 같은 것들. 어떤 이들은 사냥에서 얻은 가죽을 바치기도 했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로아의 목소리가 끊긴 뒤, 사당들은 텅 비었고 어둠에 잠겼다.

줄자라는 이 신성한 장소 중 한 곳에서 야영하기로 했다. 주변이 비교적 평평했고,



약간 트여 있으면서도 높았다. 은폐하기엔 부족했지만, 필요하다면 방어는 가능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밤을 보내는 데 필요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주변의 숲은 고요했다. 바람도 없고, 덤불 속에서 움직이는 생물도 없었다. 하지만 숲에서 보낸 시간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뭇잎이 유난히 날카롭게 바스락거릴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줄자라는 가방에서 다른 걸 꺼내려다, 대신 창을 움켜쥐었다.

또 한 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습격자가 공터 가장자리에 이르자, 줄자라는 몸을 틱기듯 일으켜 세우고는 뒤크치를 축으로 몸을 비틀었다. 어둠 속에 형체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을 꿰뚫을 각오로 뛰어들었다.

방어하듯 손이 치켜 올라갔다. “자라!”

“자, 잔?!” 충격이 줄자라의 몸을 얼어붙게 했고, 공격을 멈추려다 고꾸라질 뻔했다.

달빛 아래에서 남동생의 눈이 크게 뜨인 채, 줄자라와 창끝 사이를 오갔다.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낮게 물었다.

줄잔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일단 목 안 떨어지게 지키는 중이지.”

“위험했잖아!” 줄자라는 무기를 내리면서도, 명청한 동생의 팔을 자루로 한 번 쳤다. “너 죽을 뻔했다고!”

줄잔은 그녀의 가방이 놓인 쪽으로 따라왔다. “누나 실력이면 그럴 리 없지.”

“왜 밤중에 어슬렁거리?”

“뻔하지 않아?” 줄잔이 특유의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도와주려 왔지.”

“난 네 도움이 필요 없어.”

“모르는 일이지.”

“혹부리나무족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어! 엘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누나가 뭐든 혼자 하려는 성격이라는 거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줄자라는 징그린 얼굴을 숨겼지만, 그 기색만큼은 느끼길 바랐다. “넌 아직 애야.”

“그런데 떼를 쓰는 건 누나고 말이지.” 줄잔은 줄자라의 창을 또 한 번 피해냈다.

“다시 말할게. 누나가 왜 이러는지는 알아.” 줄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이내

“다시 말할게. 누나가 왜  
이러는지는 알아.” 줄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이내  
털어놓았다. “아니, 사실은  
잘 몰라.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과 시련을 함께 마주하기로  
약속했잖아.

털어놓았다. “아니, 사실은 잘 몰라.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과 시련을 함께 마주하기로 약속했잖아. 누나는 늘 앞에 설 운명이었고, 난 늘 곁에서 받쳐줄 사람이었어. 이게 그 시작이라면, 한밤중에 로아가 버린 산을 올라 걸만 번지르르한 도끼 한 자루 찾는 일이라 해도, 난 함께 갈 거야.”

줄잔을 바라보며 그 말을 듣는 사이, 줄자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던 짜증의 불씨가 식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넌 똑똑한 쪽이어야 하는데.”

줄잔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맞아.”

“혼자 날 쫓아온 건 꽤 어리석은 짓이야. 난 이 숲을 늘 혼자 다니지만, 넌 아직도 시장에서 길을 잊잖아.”

“변명하자면,” 줄잔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시장은 혼돈 그 자체야. 그리고 누나를 따라가는데 내가 길을 잊을 리는 없지.”

최근에 다툼 일이 있었지만, 줄잔은 평생 줄자라의 그림자처럼 함께해 왔다. 배신을 꾀하거나 스스로를 앞세우려는 게 아니라, 줄자라가 늘 줄잔을 지켜주듯 진심으로 누나를 보살피기 위해서였다.

“좋아. 따라올 거면, 쓸모는 있어야지. 불 지필 장작이나 모아.”

둘이 힘을 합치자 야영 준비는 금세 끝났다. 이내 둘은 갓 피워 올린 모닥불 곁에 앉아, 돌 위에 식량을 올려 데우고 있었다. 줄자라가 불을 건드려 빛과 온기를 더 끌어내는 동안, 동생은 숯과 양피지를 들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줄잔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림 그리는 거 오래간만에 보네.”

“음?”

줄자라가 그림을 가리켰다.

“늘 하고 있어.” 줄잔이 초상화처럼 보이는 그림에 몇 줄을 더 그었다. “누나가 더 이상 신경 안 쓸 뿐이지.”

“더 이상 신경 안 쓸 뿐이지.” 줄자라는 흉내 내듯 말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순간, 숨이 차갑게 몹었다.

기억에 의존한 그림이 늘 그렇듯 완전히 닳진 않았지만, 줄자라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설마……”

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야. 가끔 그려. 얼굴을 잊어버릴까 두렵거나,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질 때.” 줄잔은 줄자라에게 잘 보도록 양피지를 기울였다.

줄자는 넋을 잃은 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잊었을 때 잔은 어렸으니, 기억을 불잡기 힘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줄자는 조금 더 컸을 뿐이었지만, 그녀에게 그 기억은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남매를 번쩍 들어 넓은 어깨 위에 올려주던, 그 강한 팔을 기억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의 우렁찬 웃음소리도 떠올랐다. 남매의 아버지는 체구만큼이나 마음도 큰 사람이었다. 킨두루는 그를 두고 너무 물렁하다고 놀리곤 했다. 자라마와 비교하면 안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예가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는 걸 멈춘 적은 없었다. 어머니가 족장의 규율과 강철 같은 의지를 상징한다면,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였다. 가족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 자라마는 다가올 현실과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비하도록 아이들을 단련시켰다. 만예는 아직 세상에 로아의 축복이 남아 있던 시절, 종족의 위대한 영광을 되찾는 꿈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던 과거에 대한 경외를 심어주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줄잔이 물으며 줄자라를 기억에서 끌어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겠어.” 줄자는 음식을 살피는 척하며 얼굴의 눈물을 훔쳤다. “아마다치기 전에 집에 가라고 하셨겠지.”

줄잔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림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누나는 맏이고 후계자야. 근데 나도 옆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 어머니의 가르침도, 훈련도. 지위뿐만 아니라 생각을 집어삼킨 패배, 산산이 조각난 유산, 로아의 부재, 그리고 백성의 커져가는 불신까지. 밤이면 그 모든 무게가 어머니를 뭉개려고 했지. 아버지와 숙부가 결에 없었다면, 어머니는 정말 무너졌을 거야.”

줄자는 불꽃이 일그러지며 춤추는 걸 노려보았다. 줄잔의 말이 옳았기에, 이 모든 부당함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짐을 짊어지도록 태어난 건 누나지만, 나 역시 그 무게를 누나 못지않게 잘 알아. 난 누나가 꺾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줄자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몸을 뺐다. “난 꺾이지 않아.”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줄잔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고, 어딘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누나가 택한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이 길은 내가 택한 게 아니야. 정해진 거지. 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그건

줄자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줄진에게 돌리고 있었다.  
줄진이 자존심에 휘둘려 호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니가  
패배로 산산이 조각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니와 더불어, 줄자라의  
가족도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콜란지는  
허풍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가지 말만은 옳았다.  
실패는 그녀가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였다.

조부의 선택 때문이었다. 줄자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줄진에게 돌리고 있었다. 줄진이 자존심에 휘둘려 호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니가 패배로 산산이 조각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니와 더불어, 줄자라의 가족도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콜란지는 허풍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가지 말만은 옳았다. 실패는 그녀가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였다.

“딱 표정 보니까 알겠네.” 줄잔이 담담히 말했다.

“무슨 표정.” 줄자라가 투덜거렸다.

“잔이 뭐라 하든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표정.”

좋지 않은 기분 속에서도, 미소가 흘러나왔다. 소소한 미소였지만. “그런 표정도 있어?”

“그래. 그 표정.” 줄잔은 주먹마디로 누나의 볼을 콕 눌렀다. “바로 그거.”

“이익! 하지 마!” 줄자라는 한 손으로 그를 쳐내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미소가 조금 더 커졌다.

잔도 같은 미소를 지었다. “보기 좋네. 화를 안고 잠들면 안 되잖아.”

그것 역시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그를 떠올리자 줄자라의 마음 한구석이 가라앉았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의 조언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떠난 뒤다.

“돌아갈 수도 있어.” 줄잔이 말했다. “산꼭대기에서 떨어질 위험 없는 계획을 다시 세우자.”

“난 안 떨어져.”

“근데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럼 어머니는 다친 몸에 슬픔까지 안고 도전에 나서야 해.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줄자는 동생의 시선을 느꼈지만, 대답 대신 타버린 음식을 집어 내밀었다. “먹어. 그리고 꽃 쉬어.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해가 지평선 위로 오르기도 전에, 남매는 야영지를 정리했다. 줄자라가 앞에 서서 이동 속도를 조절했다. 줄잔은 말없이 뒤따르며, 끊임없이 사각거리며 그림을 그려 나갔다.

‘어릴 때하고 똑같네’ 줄자는 이와 비슷한 아침들을 떠올렸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온갖 일을 챙기면, 늘 뒤에서 잔이 따라오던 날들. 언제나 곁에 있고, 언제나 충직한 잔.

입 밖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내심 이번에도 따라와 준 것이 고마웠다.

남매는 쉬지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걸으며 물주머니와 말린 멧돼지고기를 번갈아 넘겼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탈 없이 마지막 오르막까지 도착했다. 마침내 찾아온 작은 행운이었다.

“좋아.” 줄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끈을 조였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여기서 기다려?” 줄잔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혼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면 더 빨리.....”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냥 산에서 뛰어내려 끝내는 게 낫지 않아? 콜란지는 누나의 기억을 상대로 둔기를 휘두르면 될 테고.”

줄자라는 분노가 창끝처럼 날카롭게 치솟는 걸 느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잔? 음식에 독을 탈까? 아니면 놈이 잠든 사이에 목을 따라고?”

줄잔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누나보단 그 자식이 죽는 게 낫지.”

“그런 짓을 벌이고, 수치를 안고 살라는 거야?”

“놈도 기회만 되면 누나한테 그렇게 했을 거야! 중요한 건 누나가 살아남는다는 거라고!”

“네가 싸움을 피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림자에 숨어 기습하는 데 익숙한 건 아니야. 우리 동족에게 필요한 건 족장이지, 겁쟁이가 아니야!”

줄잔은 얻어맞은 것처럼 물러섰고, 눈에는 상처받은 빛이 맴돌았다. 그제야 줄자라는 자신이 콜란지를 두고 한 말이 잔은 자신에게 향한 말로 받아들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사과하려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잔이 줄자라에게 상처받았다면, 더는 함께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럼 안전하겠지. 그리고 도끼를 찾아 돌아온 뒤에,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동생에게 상처를 주는 건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

족장이라면 그래야 한다.

‘아니, 아니야, 저 얼굴을 봐!’ 마음속 어딘가가 비명을 질렀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사과해!’

하지만 줄자라는 턱을 들어 올렸다.

동생의 얼굴에서 고통은 무관심의 가면 아래로 사라졌다. 차라리 줄잔이 고함을 쳤으면 더 나았을 텐데.

줄잔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비가 왔어.” 줄잔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줄자라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느슨한 돌을 조심해.”

그리고 줄잔은 몸을 돌려, 함께 걸어온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줄자라는 동생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뒤에서 부르고, 쫓아가 불잡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이내 그녀는 말과 무력한 열망을 삼키고, 발걸음을 돌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분노에 떠밀려, 줄자라는 거미처럼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손을 웃기고 발을 디디며, 배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가 그녀를 위로 밀어 올렸다. 두 번이나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해 죽을 뻔했다. 하지만 단련된 몸과 기술이 줄자라를 불들어 주었다.

산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침내 줄자라는 몸을 끌어 올려 사원의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매끈한 돌에 몸을 기대며 주저앉았다. 팔은 펼리고, 페는 불타는 듯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눈부시게 내리쬐며, 어서 움직이라 재촉하는 듯했다. 해의 위치로 보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줄자라는 심판하듯 쏟아지는 빛을 가리려 손을 들었다. “가야 해.”

벼랑 끝에서 선 줄자라는 사원을 마주했다. 수년간 방치된 탓에 곳곳이 무너지고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줄자라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 이젠 독수리의 등지가 되어버린 부서진 제단을 지나 중앙 탑의 서늘한 그늘 속으로 들어섰다.

아치형 입구를 지나 본당에 들어서자, 조각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 개의 독수리 머리. 벽마다 하나씩. 독수리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줄자라를 텅 빙 눈으로 응시했다. 평가하고, 가늠하듯이.

줄자라는 조각상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공간 전체를 둘러보았다. 해진 천으로 뒤덮인 긴 의자들. 비어 있는 공물 그릇들. 일부는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곳이 전성기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았다. 사제와 전령, 신도들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 기도를 올리는 소리에 벽이 떨리곤 했다.

입구 위 틈새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람이 한 줄기 불어 오래전에 꺼진 장작더미에 먼지와 재를 일으키자, 반짝이는 별빛 같은 구름이 되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역겨웠다. 기침을 하며 줄자라는 코와 입을 가리고, 가늘게 뜬 눈으로 자욱한 안개 속을 응시했다.

저기 있다. 어제 무릎을 끓었던 것과 닮은 제단 아래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금속질의 무언가. 줄자라는 달려가며 거리를 좁혔고, 미끄러지듯 멈추며 다시 먼지를 일으켰다. 때와 거미줄에 덮인 도끼가 거기 있었다.

줄자라는 천천히, 경건하게 손잡이를 감싸 쥐고 들어 올렸다. 오래됐지만 잘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묵직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무게 균형도 좋았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커 보였다. 빛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끼는 마치 줄자라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손에 꼭 맞았다. 그녀는 손잡이를 움켜쥐고는 시험 삼아 한 번 휘둘렀다. 공기를 가르는 감각이 훌륭했다. 날은 여전히 사람을 단번에 둘로 가를 만큼 예리해 보였다.

아니면, 오만한 썩은가지 족장 하나쯤은.

전리품을 손에 넣은 그녀는 돌아서려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세 개의 독수리 머리 중 하나와 시선이 마주쳐 멈췄다.

줄자라는 늘 무시당하던 공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도끼를 가져가는 건 옳지 않게 느껴졌다. 게다가 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있다면.....

줄자라는 도끼를 두 손바닥 위에 받쳐 들고 고개를 숙였다. “숙부께서는 아직도 당신이 듣고 있다고 믿으시더군요.” 줄자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동족에겐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믿을 게 필요하고요.”

비명이 고요를 산산이 깨뜨렸다.

“자라!”

“잔?” 당혹감에 몸이 치솟았고, 줄자라는 심장이 터질세라 출구로 내달렸다. 귀에는 미친 듯한 고동이 울렸다. 그녀는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으며 연단의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아래에 펼쳐진 광경은 공포를 폭포처럼 쏟아부었다.

거대한 몽둥이가 땅을 내려치기 직전, 줄잔은 옆으로 몸을 던졌다. 흙과 돌이 물보라처럼 튀어 올랐다. 혹부리나무족 하나가 포효하며 무기를 들어 올렸다. 말이 무기지, 가지를 부러뜨린 나무 한 그루에 불과했다. 괴물은 혼자가 아니었다. 최소 두 마리의 거인이 더 뒤따르며, 모두가 줄자라의 동생에게 달려들려 했다. 줄잔은 자신을 움켜쥐려 드는 더러운 손가락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숙부께서는 아직도 당신이 듣고 있다고 믿으시더군요.” 줄자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동족에겐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믿을 게 필요하고요.”

줄자라는 손잡이를 잡고 빠르게 밑으로 내려갔다. 위험했고, 어리석은 짓이기도 했다. 한 번만 잘못 잡아도 산비탈 아래로 퉁겨 나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동생에게 가야 했다.

괴물 하나가 줄잔에게 손을 뻗었지만, 줄잔은 단검을 손에 꽂아 넣었다. 괴물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땅을 내리치자 재빨리 몸을 뺏다. 다른 한 놈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려 했으나, 놈이 줄잔의 망토 자락을 붙잡았다. 천이 잔의 목을 조였고, 괴물은 줄잔의 비명을 끊어버린 채 나무 쪽으로 내던졌다. 둔중한 충격음에 줄자라의 이가 저릿해졌고, 이내 줄잔은 땅에 떨어져 둔덕 너머로 굴러떨어졌다.

광분한 줄자라는 포효하며 몸을 던졌다. “안 돼! 잔!” 그 외침이 산을 울렸고, 세 거인이 동시에 줄자라에게로 돌아섰다. 허공을 가르며 도약한 줄자라는 동생을 내던진 혹부리나무족의 목에 도끼날을 박아 넣었다. 살이 갈라지고, 뼈가 부러지는 감각이 전해졌다. 피가 다른 혹부리나무족에게 튀어, 잠시 시야를 가렸다.

공포가 귀 안에서 비명을 질렀고, 줄자라는 절벽 끝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줄잔이 살아서 절벽에서 튀어나온 뿌리를 붙잡고 있는 걸 보자, 안도감에 몸이 휘청거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줄자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줄자라는 동생을 단단한 땅 위로 끌어 올려 꼭 끌어안은 뒤, 남은 혹부리나무족이 정신을 차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를 뒤로 밀쳤다. 놈들은 주먹과 무기를 들어 올리고는 포효하며 돌진해 왔다.

“내 뒤에 있어!” 줄자라가 외치며 혹부리나무족을 향해 달려갔다. 동생이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인할 여유까지는 없었다. 그녀는 도끼를 꽉 쥐고 휘둘렀다.

줄자라는 무기를 거듭 들어 올려 휘두르며, 근육질로 된 팔과 거대한 발을 베어냈다. 일부는 임시로 만든 무기에 퉁겨 나갔지만, 그녀의 속도는 줄지 않았다. 계속 몰아붙인 끝에, 다음 일격에 다리 하나가 날아가며 거인은 울부짖었고, 무릎을 끊었다. 뒤통수에 일격을 내리꽂아 숨을 끊은 후, 줄자라는 마지막 상대를 마주했다.

남은 혹부리나무족에게 도끼를 내려찍기 위해 도약한 뒤에야 불안정한 바위가 시선에 들어왔다. 무기가 괴물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줄자라는 그대로 매달린 채, 기울어진 땅으로 쓰러지는 몸과 함께 떨어졌다. 혹부리나무족이 땅에 내리꽂히자, 그 아래의 대지가 곧바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줄자라의 발밑에서.

“자라!”

동생의 외침이, 발밑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줄자라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하늘이 위로 열리고, 줄자라는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갔다.



줄자라는 꿈에서 어둠을 보았다.

깊은 밤을.

도저히 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은 산들을.

그녀는 그중 하나를 오르고 있었다. 손을 옮기고 또 옮기며, 한 치 한 치 고통스럽게. 바위는 그녀의 손바닥을 찢었고, 그 상처에서 불이 흐르는 듯했다.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에는 닿을 수 없었다.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줄자라에게 기대고 있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멈추면, 저들은 떨어지리라. 그럼 줄자라는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줄자라는 계속 나아갔다. 정상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조부가 있는 곳으로. 그의 눈에는 심판이 담겨 있었다.

분노가 줄자라의 온몸을 휘감았다. “날 내려다보지 마.”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다시는 나를 내려다보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산비탈을 뒤흔들었다.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줄진은 눈 한 번 깜빡이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 줄자라는 이를 갈았다. 분노에 떠밀려, 줄자라는 더 빠르게 몸을 끌어 올렸다. “당신!” 더 빠르게, 말도 안 될 만큼. 이제 줄자라는 두 발로 서서, 산의 벽을 달리고 있었다. “당신!” 어느새 아킬존의 도끼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돌풍이 줄자라의 등을 밀쳐, 허공으로 띄워 올려 조부 위를 넘어가게 했다. “비겁자아아아아!” 줄자라는 도끼를 조부의 머리에 내리꽂았다.

눈부시고 맹렬한 불길이 줄자라를 둘러싸고 폭발했다. 도끼는 불길에 삼켜져 사라졌다. 줄진도 함께 사라졌다. 다음은 자신일 거라 확신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도. 눈 부신 빛과, 가슴속에서 날뛰는 분노만이 있었다.

줄자라의 눈이 파르르 떠졌다. 잠시 동안 세상이 낯선 형체와 색으로 일그러져 있다가, 이내 익숙한 자신의 방으로 또렷해졌다.

“무, 무슨…….” 목이 말을 내뱉으려는 의지를 거부했다.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 같았다.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걱정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킨두루가 몸을 기울여

다가왔다. 눈이 마주치자, 킨두루가 한 번에 숨을 몰아 내쉬었다.

“주, 줄자라.” 그는 안도한 채 더듬었다. “아킬존께 찬미를.”

“아킬존.” 줄자라는 속삭이듯 되뇌었다. 산꼭대기 사원과 손에 들려 있던 도끼의 기억을 불잡으려 애썼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킨두루가 침상 곁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추락했더구나.”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킬존의 외연에서.” “죽고도 남을 높이였는데, 상처 하나 없었지.”

삼촌의 말 하나하나는 이해했지만, 그 의미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떨어졌다고요?” 줄자라가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줄잔이 산 아래에서 널 찾았다. 하필이면 독수리 둉지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 있었지. 용케 도끼도 놓치지 않았고. 줄잔이 널 집으로 데려왔다.”

줄자라는 삼촌의 시선을 따라, 벽에 기대 놓인 익숙한 도끼를 바라봤다. 저게 어떻게..... 아킬존!

그 깨달음과 함께, 기억이 거꾸로 밀려들었다. 도끼를 들고 거인들과 싸웠던 일. 사원에 올라 무기를 발견한 일. 애초에 무기를 찾으러 간 이유도.....

“도전!” 줄자라는 근육통을 안은 채 침상에서 별떡 일어났다. “저, 얼마나 잠들어 있었죠?”

킨두루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짓들었다. “하루는 넘었어. 도전은 이미 시작됐지.”

공포가 차갑게 줄자라를 꿰뚫었다.

“네 어머니가.....” 킨두루가 말을 이었다. “너 대신 콜란지를 만나러 갔다.”

“안 돼.” 줄자라는 숨을 삼켰다. 부상당한 자라마에게 승산은 없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줄자라는 담요를 걷어차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 사이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무시했다.

“뭘 하려는 거냐?” 킨두루가 다그쳤다.

“아시잖아요.” 줄자라가 도끼를 집어 들며 쏘아붙였다.

“지금 싸울 몸 상태가 아니야!”

“속부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지금은 뭐든 괜찮겠죠.” 줄자라는 방을 뛰쳐나와 집을 가로질러, 전투곰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도전은 부서진 왕좌에서 치러진다.” 줄자라가 안장에 올라 고삐를 당길 때쯤

공포가 차갑게 줄자라를 훠뚫었다.

“네 어머니가.....” 킨두루가 말을  
이었다. “너 대신 콜란지를 만나러  
갔다.”

“안 돼.” 줄자라는 숨을 삼켰다.

킨두루가 외쳤다. “아킬존의 날개가 네 등을 밀어 주기를!”



폐허가 된 도시가 눈에 들어오기 전, 모여든 군중의 함성이 먼저 줄자라의 귀에 닿았다. 고향과 야유가 오가며, 공방이 오가고 있음을 알렸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길은 거의 비어 있었다. 다만 몇몇 뒤처진 이들과 아마니 보초, 썩은가지 전사들이 큰길 양쪽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 곁을 지나쳤다. 놀라 줄자라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도, 등 뒤로 던져지는 모욕도 전부 무시했다. 그렇게 전투곰을 몰고 투기장에 올랐다.

더 빨리. 더 빨리!

정상에 이르자, 줄자는 안장에서 뛰어내려 낮은 신음과 함께 착지했다. 통증이 전신에 훌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빠빠한 군중 사이로, 환호 속에서 무기가 부딪치는 첫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켜!” 줄자는 소리치려 했지만, 아직도 타는 듯한 목 때문에 말이 부서져 나왔다. “비키라고!”

투기장을 둘러싼 인파를 헤치며 나아가던 줄자는, 돌아보지 않아도 동생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다. 언제나 그랬듯, 동생의 기척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족장께서 비키라고 하신다!” 출잔이 외쳤다. 줄자는 출잔이 이렇게 크고 격정적으로 외치는 걸 처음 들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둘을 보고는, 순순히 길을 터주었다.

줄자가 앞으로 내달렸다. 그 순간 콜란지가 자라마의 도끼를 피하자마자 날카롭게 벼린 둔기 끝을 복부로 찔러 넣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살이 찢어지는 소리에 줄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줄자는 복부에 박힌 무기를 불잡는 자라마를 명하니 바라봤다. 콜란지가 무기를 뽑아내자 자라마는 앞으로 쓰리지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한 손으로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어머니가 차츰 땅으로 가라앉는 동안, 세상이 느려진 것 같았다.

콜란지는 의기양양하게 피로 젖은 팔을 들어 올렸다. 줄자는 귓속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의 천둥 같은 고동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어머니, 안 돼요!’

믿기지 않게도 자라마는 그 절규를 들은 듯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줄자라를 찾았다. 딸을 보았다. 도끼를 보았다. 자라마의 공포가 평온으로 바뀌었다. 피로 물든 입술이 미소를 지으며 움짝달싹했지만, 그 말은 끝내 줄자라에게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임을 멈췄다.

어머니가 피 웅덩이 위에 쓰러져 있는 광경은 강철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줄자라의 내면을 후려쳤다. 팔다리를 휘감으며 작렬하던 슬픔의 냉기는 밀어닥치는 분노에 녹아내렸다. 부글부글 끓는 분노는 줄자라의 속을 태웠고, 더 이상 담아둘 곳이 없을 때까지 가득 채웠다.

그리고 터져 나왔다.

줄자라의 첫 진정한 전쟁의 함성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가 전해지리라. 화산이 불을 내뿜듯, 뜨겁고 맹렬하게 터져 나왔다고. 그것이 부서진 왕좌를 수놓은 오랜 돌과 그 너머까지 흔들어 놓았다고. 함성을 들은 이들은 거대한 독수리의 비명에 비유했고, 현장에 없었지만 소리만 들은 이들마저 며칠 동안은 아킬존이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로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전설이 태어났다.

“아, 애송이.” 콜란지가 웃었다. “딱 고아가 되는 순간에 맞춰 왔구나.” 콜란지가 손을 들어 까딱였다. “와라.”

“자라, 기다……” 줄잔이 말하려 했지만, 줄자라는 이미 투기장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콜란지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물러나 그녀를 마주했다.

줄자는 온 힘을 담아 도끼를 휘둘렀다. 도끼날이 콜란지의 둔기와 충돌했다. 충격이 줄자라의 몸을 타고 울려 퍼졌고, 짧은 순간 콜란지의 두툼한 주먹이 그녀의 턱을 강타했다.

눈앞에 별이 터졌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퍼졌다. 그녀는 뒤로 몸을 던져 거리를 벌리고는 무기를 치켜들었다.

콜란지는 조롱 섞인 낮은 웃음을 흘렸다. “기세 하나는 불같군. 그건 인정하지. 네 녀석까지 처리하고 나면, 너희 남매의 머리도 가져가야겠어.” 콜란지는 투기장 가장자리에서 싸우라고 외치고 있는 줄잔을 흘끗 봤다. “가족끼리 함께해야지, 안 그래?”

썩은가지 족장은 광소를 지었고,  
몸을 기울이며 줄자라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재밌었지만.....”  
그때 콜란지가 굳어지며 도끼에  
시선을 고정했다. “말도 안 돼.”

줄자라는 밭을 내질러 콜란지의  
복부에 뒤꿈치를 꽂았다.

“머리가 떨어지는 쪽은 너다!” 줄자라는 훨씬 큰 트롤을 향해 내리치며 소리쳤고, 분노를 담은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자신이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분노에 맡겨 계속 공격했다간, 언젠가 빗틈이 노출될 테지.

하지만 개의치 않는 마음도 있었다. 분노를 놓는 순간, 그 아래 가려진 고통이 줄자라를 삼켜 콜란지보다 먼저 싸움을 끝내버릴 테니까.

그녀는 다시 무기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콜란지가 둔기의 각도를 살짝 틀어, 도끼를 걸어 붙잡았다. 썩은가지 족장은 광소를 지었고, 몸을 기울이며 줄자라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재밌었지만……” 그때 콜란지가 굳어지며 도끼에 시선을 고정했다. “말도 안 돼.”

줄자라는 발을 내질러 콜란지의 복부에 뒤크침을 끊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모래가 튀었다. 콜란지의 오만함이 잠시 흔들리며 눈빛이 번뜩였다. “그 도끼가 네 어미를 구하지 못한 것처럼, 널 구해주진 못한다, 애송아.”

“족장이라고 불러라.” 줄자라가 이를 악문 채 내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콜란지에게 달려들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연속으로 휘둘렀다.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불꽃이 햇빛 속으로 사라졌다. 줄자라의 심장은 난폭하고 사납게 날뛰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게 느껴졌다. 도끼를 친 손이 더욱 조여들었고, 심장에는 분노가, 목에는 불길이 차올랐으며, 속을 텅 비워버릴 듯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줄자라는 무기를 휘둘렀다.

도끼날이 살에 파고들었다. 힘줄과 뼈를 갈랐다.

콜란지의 미소가 사라졌다. 곧이어 그의 머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몸이 뒤따라 쓰러졌다.

잠시 줄자라는 그 광경을 응시했다. 도끼를 몇 번이고 내리꽂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지만, 간신히 억눌렀다. 삼켜냈다. 또 다른 비명이 속에서 차올랐다.

대신 그녀는 침묵에 잠긴 투기장을 돌아보며, 자신을 적으로 여길 자들, 아군으로 여길 자들, 지도자로 여길 자들의 얼굴을 훑었다. 줄자라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콜란지의 시신을 넘어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나는 줄자라다! 자라마의 피를 잇는 자! 아마니와 숲 부족들의 족장이다!” 줄자라의 몸은 떨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누구든 좋으니 앞으로 나와라!”



썩은가지 족장은 흙바닥에 버려진 채, 줄자라와 동생, 다른 이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자라마를 성스러운 아마포로 감싸 어깨에 메고, 아만니자르까지 가는 내내 높이 들고 갔다.

줄잔은 치유사에게 진료를 받으라면 잠시라도 물러서 달라고 설득했지만, 줄자라는 거절했다. 통증만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킨두루는 정착지 가장자리에서 일행을 맞이했는데,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표정은 비통했다. 그는 자라마가 마지막 의식을 치를 제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 뒤의 일들은 모두 흐릿했다. 사람들이 오가며 축하와 조의를 건넸다. 줄자라는 어머니 곁을 지켰고, 줄잔은 누나의 곁을 지켰다. 줄자라는 흐느끼는 동생을 품에 안아주었다.

밤이 될 무렵, 줄자라는 어떻게든 몸을 씻고 다가을 의식을 위해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아직 공기에서 흙냄새가 날 만큼 파낸 지 얼마 안 된 무덤 주위로 햇불이 놓였다. 어머니를 땅에 묻는 동안, 줄자라는 말 한마디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후, 킨두루가 조문객들에게 연설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불빛의 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킨두루가 망자를 얼마나 훌륭히 기렸는지 이야기하겠지만, 줄자라는 그 말을 결코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지조차, 줄자라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줄자라는 대전당에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다. 다른 부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새로운 족장에게 경의와 공물을 바쳤다. 썩은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찾아왔다. 그들은 족장과 콜란지의 머리를 수습해 숲속으로 사라졌다.

줄자는 선물을 받아 줄잔에게 넘겼다. 그건 아킬존의 사원 아래에서 내뱉은 말들에 대해, 앞으로 수없이 건넬 사과 중 첫 번째였다. 줄잔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고,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날 밤, 축하는 없었다. 성대한 연회도 없었다. 오직 상실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자, 줄자라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족장의 처소였다. 장례와 회의의 소란 속에서,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뒤의 고요 속에서, 줄자라는 어머니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이 뒤섞인 광경을 바라봤다.

이건 옳지 않았다. 자신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 이곳은 어머니의 자리였고,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것이었다!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투기장에서부터 내려앉은 무게는 장례 행렬 속에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찬사와 위로 하나하나가 더해질수록, 어머니가 떠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만이 더욱 선명해졌다. 목에 걸린 돌이 하나둘 늘어나 끝내 줄자라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어느 순간 줄잔이 어둠 속에서 줄자라의 곁으로 왔다. 랄지도 함께 왔고, 말없이 곁을 지켰다. 결국 줄자라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추슬렀다.

길게 이어지던 밤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끊겼다.

줄자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열렸다.

킨두루가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의 도끼였다.

“이제 네 거다.” 킨두루는 감정이 잔뜩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음.”

그는 자라마가 늘 두던 벽난로 선반 위에 도끼를 올려놓았다.

“이번 일은 네 탓이 아니다, 자라.” 킨두루가 말을 꺼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녀의 가슴에서 올라왔다.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킨두루 역시 그 감정을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자라마는 위험을 알고도 나섰다. 너 대신 나섰지. 어떤 어머니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곧바로 눈물이 차올랐다. 눈물은 이미 얼굴을 적신 자국을 따라 흘러내렸는데, 불과 며칠 전 어머니가 그려주었던 문양을 흉내 낸 모습이었기에 잔인하게 느껴졌다.

“너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킨두루는 무릎을 끊고 다가와 이마를 부드럽게 맞댔다. “이것까지 짊어지길 바라지는 않았을 거다.”

줄자라는 숙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두 분 다 떠나셨다고요!”

“그래.” 킨두루는 떨리는 줄자라의 몸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주먹이 킨두루의 어깨와 등을 마구 두드렸다. “어, 어떻게 날 두고 갈 수 있어!”

“다 쏟아내라, 자라.” 킨두루의 목소리도 떨리며 갈라졌다. “전부 쏟아내.”

킨두루는 줄자라가 울고, 욕하고, 침을뱉고, 몸부림쳐도 끝내 놓지 않았다.

줄자라 안의 폭풍이 잣아들자, 킨두루는 조카를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썩은가지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돌고 있었다.

전령은 돌아서려다 줄자라의 부름에 멈췄다.

“숙부.”

“음?”

줄자라의 시선이 투기장에서 돌아온 뒤 내던져 두었던 아킬존의 도끼로 향했다.  
콜란지의 피가 아직도 날 끝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것 좀 치워 주세요.”

킨두루의 미간이 구겨졌다. “정말 그래야겠느냐? 차라리 놓을 곳을 찾……”

“아뇨.”

킨두루의 미간에 더 깊은 주름이 패다. “아킬존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써놓고, 그걸 버리겠다는 게냐?”

“축복이요?” 줄자라는 웃음을 흘렸다. 텅 빈 웃음이었다. “저건 저주예요. 근처에  
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로아께서……”

“전 사원에서 아킬존에게 기도를 올렸어요!” 분노가 목을 타고 올라와 이를  
두드렸다. “그런데 로아는 저한테 뭘 해줬죠? 어머니가 죽는 걸 보게 하고, 구하지도  
못할 만큼 늦게 도착하게 했잖습니까. 로아는 저도, 우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셨지. 그러니 제가 족장으로서 휘두를 건 어머니의 도끼입니다!”  
분노로 몸은 떨렸지만, 말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리지 않았다. “저걸. 당장. 치우십시오.”

킨두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족장님.”